

## 학생들의 효과적인 말하기 수업에 대한 인식도 연구

노석희\*

고려대학교

김형엽

고려대학교

**Noh, Sukhee & Kim, Hyoungyoub. (2012). A study based on students' awareness of effective speaking class. *Modern English Education*, 13(4), 345-36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various practical teaching methods and activities for non-native English teachers of speaking class in universities which are aimed to help improve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students'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general English speaking class, a survey was conducted on 121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completed a general speaking course. The questions in the survey include: how interested they were in their speaking class; how much improvement they think they have made in their speaking ability by being registered at the course; which activities have helped them the most; and how they assess their level of improvement in their overal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ddition,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new classroom activities including imitative speaking, intensive speaking, responsive speaking, interactive speaking, and extensive speaking, which are to help enhance effectiveness of speaking class. Based on clearer understanding of how well students are awa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peaking class they have taken, combined with various innovative teaching methods and classroom activities suggested in this paper, we hope to contribute to shedding more light on ways to help students develop practical and efficient communicative abilities.

**[imitative · intensive · responsive · interactive · extensive speaking  
/모방적 · 세부적 · 반응적 · 상호작용적 · 확장적 말하기]**

---

\* 제1저자: 노석희, 교신저자: 김형엽

## I. 서론

우리의 영어 사용능력은 끊임 없는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까지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어의 네 가지 영역 중 말하기의 표현능력을 제대로 배워서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의 현재 영어 수준은 이해 능력에 해당하는 읽기와 듣기 능력에 비해 표현능력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고 있다(전지현, 이완기, 김정렬, 2011). 이에 국가에서는 정규교육을 통하여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인 NEAT(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 시험은 학교 영어 수업의 교수학습을 의사소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박지선, 이문복,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시행에 앞서 현재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교양영어 말하기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비원어민 교사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모방적 말하기, 세부적 말하기, 반응적 말하기, 상호작용적 말하기, 확장적 말하기 등의 학습방법과 활동을 교실 수업에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학생들의 말하기 수업의 관심도와 기대수준, 말하기능력의 발휘 정도, 수업에 대한 연습과 소화정도, 말하기수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선호하는 활동, 말하기능력의 개선 정도를 조사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학생들은 영어로 말하기 수업에 관심이 높고, 자신의 능력에 50%이상을 수업시간에 발휘하고 있으며, 영어학습의 연습이 수업내용 소화력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는 외국인친구 만나기와 영화 보기라고 답변하였고 가장 선호하는 학습활동으로는 자유토론, 짧은 대화 만들기과 역할극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실제로 수업을 통하여 상당히 영어사용능력의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 영어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비원어민 교사이며, 발음이나 어휘의 활용, 언어적인 능력에서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 교사들은 원어민 교사와는 달리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자신감이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말하기 수업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학습방법과 활동들이 개발되어 교실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영어사용 능력의 확충 방안이 마련되고 비원어민 교사들이 영어로 말하기수업을 진행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과 기법들이 개발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추상적인 이해, 즉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어떠한 언어를 사용함이 올바른가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수법은 학습자가 영어로 대화할 때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쓰는 언어를 받아들이는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데 있다.

Savignon(1983, 2002, 2003)은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되는 요소들의 내용 및 구성을 스스로 고안한 “역삼각형”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 모델의 주된 목적은 언어학습의 교실 상황을 모델로서 보인 것이며, 의사소통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행위를 수반하는 사건 속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들로서 네 종류의 능력을 제안하였다. 문법적 능력, 담화능력, 사회문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능력들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모델은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데 중요한 요소들로서 각 능력은 상호 조합과정을 바탕으로 서로 어우러지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해당 언어를 연습하고 경험하도록 하여 비로소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델에 포함된 능력들은 각각 독립적인 요소들로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필수적인 요소로서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전적 진전상황은 다른 요소들과의 상승 효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늠하는 네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법적 능력은 문장차원에서의 문법적인 형태, 언어의 어휘적, 형태적, 통사적, 음운론적 특징을 알아내고 이러한 특징들을 문장이나 단어를 해석하고 생성하는 데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킨다. 문법적 능력은 규칙을 말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해석하고 표현하고 협상하여 규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담화능력은 단어나 구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변화, 글을 형성하는 단어나 구, 의미 전체를 연관 지어 보는 것이다. 이 때 개별문장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문장들 사이에는 응집성과 통일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셋째로 사회문화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언어적 형태뿐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만 되는 사회적 규칙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로 전략적 능력은 다양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전략 및 이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수단에 관련된 목록을 가리킨다.

Brown(2007)은 의사소통능력을 문법적, 담화적, 기능적, 사회언어적, 책략적으로 나누어 좀 더 세분화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교실목표를 제시하였는데, 학습자로 하여금 의미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용적 언어사용, 진정성의 언어사용, 기능적 언어사용과 같은 세 가지 부분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영어에 유창하지 못한 비원어민 교사들은 이 교수법으로 수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원하는 정도까지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배두분(1997)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적용하려면, 언어의 의미전달수단을 바탕으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능에 역점을 두어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비원어민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대화 및 수업내용을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수업을 진행해야만 훨씬 효율적인 수업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비원어민교사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교사의 노력 정도에 따라 수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의 주된 초점이기도 하다.

## 2.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사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국제 공용어로서 영어는 꼭 습득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언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영어 교육의 효율성 정도를 가늠해보는 측면 중 하나로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교사의 역할 및 효용성에서의 차이점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E. H. Han(2010)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들은 유창성에 있어 더 나은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고, 관용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어의 형태에서도 문화적인 함축성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며, 문법적인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자라고 하였다. 현재 의사소통중심의 언어수업이 확대되고 강조됨에 따라 많은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원어민 교사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확한 발음과 자연스런 구사능력으로 영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을 원어민 교사만으로 대체하기에는 인력이나 비용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원어민교사에 의해 수업 받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눈에 띄는 정도로 현저한 발전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다. Medgyes(1996)는 원어민과 비원어민은 언어를 교육하는 교사로서 서로 다른 특성을 소지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김순복(1998)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보다 도리어 비원어민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 및 문화를 훨씬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학습자중심의 수업이 더 될 수 있고, 나아가 학습의 효과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비원어민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 당사자들의 언어적, 심리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어민 교사가 학습교재 이외에 영어에 대한 풍부하고

순발력이 있고 창의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소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원어민교사에게 더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학습자의 수준과 교사의 지도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비원어민 교사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정완(2012)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비원어민교사에 비해 영어능력 향상에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공평하게 대하는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도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음을 제안하면서, 그 중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수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비원어민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 E. H. Han(2010)의 경우는 비원어민 교사의 언어 수행능력, 듣기와 말하기 기술, 언어간 문화소통, 교육적 수행능력들이 원어민 교사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당 논문에서 보면 연구에 포함된 인터뷰에서 수업을 받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인 교사의 잘못된 발음과 억센 인식 부재, 어휘의 부족, 교사의 이해능력이 수업을 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한편 수업진행은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과 비모국어 화자인 교사 사이의 상호 교류작용이 배제된 채 교사 중심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였다. 영어가 비모국어인 교사들 자신도 스스로의 언어 수행능력 한계 및 어휘활용의 제한성은 물론 학생들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시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험들이 교사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양한 지도방법이나 지식에 있어서는 영어가 비모국어인 교사들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Nunan(2003)은 EFL 교실에서의 가장 큰 도전은 동기의 부족과 더불어 학생들이 말하기의 상호작용이 매우 부족하고 외국어 교실에서조차 모국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학생 수가 많은 학급은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여 직접 표현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와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할 기회가 모두 제한된다고 언급하였다. 박지선과 이문복(2012)은 비원어민 교사의 장점으로 학생들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설명 이해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모국어를 수업 중에도 사용하고, 교실 밖에서조차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동질적 EFL 학급은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면서 그들이 말하도록 유도하고 이끌어 내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명확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고 서로 상호작용을 실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외국어를 충분히 연습을 하는데 아주 적절한 수업활동을 찾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III. 설문조사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생들의 말하기 사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1학년 교양영어 수업을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에 있는 D여대 재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2011년 2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전공은 경영학과 35명, 디자인학과 33명, 사회복지학과 17명, 방송연예학과 14명, 무응답 22명으로 구성되었다.

#### 2. 연구과정

표 1  
교양영어수업과정

제목	내용	세부사항
교과과정	1년 말하기중심 교양영어수업	1년간 한 주 3시간
교재	자체 제작	교재와 활동책
교사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교사로 구분	
단원소개	주제중심(매 학기 8 단원)	1학기: 자기소개, 생김새와 성격, 길안내, 날씨와 계절, 음식과 외식, 쇼핑, 질병과 건강, 전화대화 2학기: 파티, 주말, 건강과 운동, 호텔, 쇼핑, 대중교통, 공항, 은행
수업진행	단원별 구성	Part 1: Words & Expressions Part 2: Conversation Spotlight Part 3: Video Highlight Part 4: TOEIC Connection Part 5: Reading Comprehension
수업평가	① 사전 듣기 시험 ② 사후 듣기시험 ③ 중간고사 (그룹테스트 vs. 개인면접) ④기말고사	받아쓰기 객관식문제 시험 그룹테스트: 역할극 일대일 개인면접시험 그룹테스트: 역할극 또는 그룹프로젝트

학생들은 입학 후 진단고사를 통하여 원어민교사반과 비원어민교사반으로 분리되어 일주일에 3시간씩 1년간 교양영어수업을 받았다. 수업내용은 주제별로 학습하는데 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영역을 다룬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기소개, 생김새와 성격, 대중교통을 통해 길 안내하기, 날씨와 계절, 음식과 외식, 쇼핑, 건강과 질병, 전화대화를 주제로 1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2학기에는 다양한 파티, 호텔, 쇼핑, 대중교통, 주말과 운동, 공항, 은행을 주제로 쉬운 표현으로부터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듣기,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였다.

1학기 동안 배우는 교과는 단원마다 사전 듣기시험으로 문장과 해석을 쓰는 영어받아쓰기로 이해능력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두 과가 끝날 때마다 사후 듣기시험으로 토익 형식의 객관식듣기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창의적으로 만든 역할극을 짝 활동이나 그룹활동으로 시연하게 되고, 이 때 개인의 언어사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미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발표하게 함으로써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 교재는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이 미리 집에서 예습하고, 관련된 내용을 교실수업으로 진행한 후, 활동 책(activity book)으로 반복 학습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과 활동을 실행하였고, 학생들이 주어진 과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모국어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었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말하기 학습은 Brown(2004)이 분류한 말하기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수업시간에 실제로 적용한 활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모방적 말하기(Imitative Speaking): 학생들이 CD-ROM을 이용하여 대형스크린을 통해 수업의 내용을 원어민의 소리로 듣고 따라 하면서, 각 과의 주요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 2) 세부적 말하기(Intensive Speaking): CD-ROM을 통해 학습내용을 듣고 짝 활동으로 말하고, 그림을 보고 배운 내용을 전체내용과 세부 사항을 영어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짧은 대화 만들기를 직접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 3) 반응적 말하기(Responsive Speaking):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요 어휘를 살펴볼 때, 가능한 영어로 어휘를 정의하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역할극을 보여 주고, 이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이 얼마나 잘 알아듣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배운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짝 활동으로 질문하고 말하도록 하였고 짝 활동이 끝나면 전체 학생들과 함께 각 질문의 답변을 확인하였다.

4) 상호작용적 말하기(Interactive Speaking): 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각 과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를 선택하여 짝 활동으로 역할극(role play)을 준비하여 시연하였다.

5) 확장적 말하기(Extensive Speaking): 그룹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음식 만드는 법”을 준비하여 발표하도록 하거나 건강과 질병에 대한 토픽을 다루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발표하게 하였다. 한편, 2학기에 배운 호텔, 쇼핑, 대중교통, 공항, 은행과 관련된 주제로 그룹별로 해외여행 계획을 잡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과업중심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 4. 설문지 구성

표 2  
영어 말하기수업 설문지 구성

문항	항목	구성
(1)	말하기 수업에 대한 관심도	5점 척도
(2)	말하기 능력의 발휘 정도	5점 척도
(3)	어떤 영어 교사와 수업진행	3점 척도
(4)	영어 수업 전에 말하기 수업에 대한 예습	4점 척도
(5)	영어 수업의 수준	3점 척도
(6)	영어 말하기에 비해 쓰는 능력 정도	3점 척도
(7)	영어 수업에 소화정도	5점 척도
(8)	영어 학습도구	5점 척도
(9)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	5점 척도
(10)	선호하는 말하기 활동	다빈도 순위
(11)	영어로 말하기 능력의 개선 정도	5점 척도
(12)	영어로 말하기능력 개선을 위한 도전	서술형

설문지의 질문문항은 총 12개로 구성하였는데 빈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5-6번은 자신의 영어능력수준을 자가 평가하는 문항이므로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 중, 하’로 구성하였고, 문항 10과 12번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서술형으로 작성하였다.



5. 연구 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 도구는 SPSS 18.0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설문 내용의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사하고 수집한 결과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본인의 관심도와 개선 기대 수준 사이의 비교는 문항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어수업 관심도와 소화정도 수준 사이의 비교, 영어수업 말하기능력 발휘 수준과 기대 수준간의 비교, 영어수업 말하기능력 발휘수준과 연습수준간의 비교는 각 문항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수업에 참여한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설문내용 분석

다음 표 3에 제시된 설문내용 중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사하고 수집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설문지 문항별 분석

문항	설문내용	빈도 (%)					계
		①	②	③	④	⑤	
(1) 본인의 관심도		18	30	56	16	1	121
		(15)	(25)	(46)	(13)	(1)	(100)
(2) 말하기 능력에 발휘 정도		5	13	38	43	22	121
		(4)	(11)	(31)	(36)	(18)	(100)
(3) 어떤 영어 교사와 수업진행		90	19		12		121
		(74)	(16)		(10)		(100)
(4) 영어 수업 전에 말하기 수업에 대한 연습		4	47	53	17		121
		(3)	(39)	(44)	(14)		(100)
(5) 영어 수업의 수준		9	92		20		121
		(7)	(76)		(17)		(100)
(6) 영어 말하기에 비해 쓰는 능력 정도		17	76		28		121
		(14)	(63)		(23)		(100)
(7) 영어 수업에 소화정도		12	53	33	18	5	121
		(10)	(44)	(27)	(15)	(4)	(100)

(8) 영어 학습도구	① 40 (33)	② 19 (16)	③ 37 (30)	④ 18 (15)	⑤ 7 (6)	121 (100)
(9)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	① 32 (26)	② 64 (53)	③ 8 (7)	④ 13 (11)	⑤ 4 (3)	121 (100)
(10) 선호하는 말하기 활동	① 자유 토론	② 짧은 대화	③ 역할극			
(11) 영어로 말하기 능력의 개선 정도	① 0 (0)	② 13 (11)	③ 48 (40)	④ 42 (34)	⑤ 18 (15)	121 (100)
(12) 영어로 말하기능력 개선을 위한 도전	① 37	② 26	③ 2	자유토론 & 해외여행 해외연수 외국인친구 만나기		

문항 1번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수업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항 2번에서는 약 67%의 학생이 40-60%의 말하기 능력을 수업시간에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3에서 외국인 교사는 한국계-미국인 교사로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여 학생들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주로 한국인에게 영어 말하기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항 4의 결과 수업에 대한 준비는 말하기 수업의 특성 상 혼자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고, 학습방법이나 전략에 익숙하지 못한 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5에서 영어회화 수업의 수준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6번에서는 학생의 대부분이 영어 말하기와 쓰기 수준이 비슷하다고 느낀다고 답하였다. 문항 7번에서 영어수업은 대다수인 72%가 60-80%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영어수업의 수준이 본인의 수준에 비해 어떠한지를 질의한 문항 5번에서 “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영어수업의 교과내용은 학생들에게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항 8번에서 학생들은 영어학습을 할 때에 가장 접근이 높은 도구는 “교재” 및 “인터넷”이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시간이나 공간,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문항 9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외국인과 친구를 맺고 편한 대화를 통해 영어능력을 높이려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항 10번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말하기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응용하여 말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다. 특히 학생들은 자유토론 토론편과 질문들을 미리 과제로 주어 자신의 생각을 나눌 때 더욱 수준이 높고 깊은 내용중심으로 학습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문항 11번에서는 수업의

효과로 인하여 40%의 학생이 본인의 말하기능력이 처음 수업을 시작하였을 때보다는 “60%정도”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영어수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평가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이 자신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말하고 싶은 욕구는 매우 높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문항 12번에서 학생들은 외국인 친구 만나기와 자유토론을 영어학습에서 가장 도전하고 싶은 활동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해외여행과 해외연수라고 응답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는 관심과 동기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본인의 관심도와 개선 기대 수준 간의 비교

표 4  
본인의 관심도와 개선 기대 수준 간의 비교

문항1) 본인의 관심도	문항11) 수업을 마친 뒤 말하기 능력 개선 기대 수준				전체 질문11
	80% 정도	60% 정도	40% 정도	20%정도	
아주 높다	6	5	6	1	18
문항1 내	33.3%	27.8%	33.3%	5.6%	
문항11 내	46.2%	10.4%	14.3%	5.6%	
전체 %	5.0%	4.1%	5.0%	0.8%	
높다	3	17	8	2	30
문항1 내	10.0%	56.7%	26.7%	6.7%	
문항11 내	23.1%	35.4%	19.0%	11.1%	
전체 %	2.5%	14.0%	6.6%	1.7%	
보통이다	4	24	18	10	56
문항1 내	7.1%	42.9%	32.1%	17.9%	
문항11 내	30.8%	50.0%	42.9%	55.6%	
전체 %	3.3%	19.8%	14.9%	8.3%	
조금 낮은 편	0	2	10	4	16
문항1 내	0%	12.5%	62.5%	25.0%	
문항11 내	0%	4.2%	23.8%	22.2%	
전체 %	0%	1.7%	8.3%	3.3%	
매우 낮다	0	0	0	1	1
문항1 내	0%	0%	0%	100%	
문항11 내	0%	0%	0%	5.6%	
전체 %	0%	0%	0%	0.8%	
총계	13	48	42	18	121
전체 %	10.7%	39.7%	34.7%	14.9%	100%

위 문항1번 본인의 관심도와 문항 11번 질문에서 개선 기대 수준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는 개선 기대 수준의 100%문항의 응답 케이스는 0이므로 제외하였다.

### 3. 영어수업 관심도와 소화 수준간의 비교

영어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소화 수준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66, p < .01$ ). 즉 영어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어수업에 대한 소화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생의 내적 동기 중에 하나인 관심도의 차이가 학습 소화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영어수업 관심도와 소화 수준 간의 상관관계 분석

	문항1) 영어수업 관심도	문항7) 영어수업 소화 수준
문항1) 영어수업 관심도	1	.366**
문항7) 영어수업소화 수준	.366**	1

### 4.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과 개선 기대 수준 간의 비교

영어수업에서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과 말하기 능력의 개선 기대 수준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35, p < .01$ ). 즉 영어수업에서 말하기 능력에 활발히 참여한 학생은 수업을 마친 뒤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개선 수준이 높았다. 말하기 능력은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 개선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6**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과 개선 기대 수준 간의 비교

	문항2)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	문항11)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개선 기대 수준
문항2)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	1	.435**
문항11)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개선 기대 수준	.435**	1

### 5.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과 연습 수준간의 비교

영어수업에서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과 말하기 능력 연습 수준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14, p < .05$ ). 즉 연습을 많이 혹은 조금

하고 영어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에 발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말하기 능력은 적극적인 연습 활동이 수업 활동 참여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표 7**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과 연습 수준 간의 비교

	문항2)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	문항4)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예습 수준
문항2)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 발휘 수준	1	.214**
문항4) 영어수업 말하기 능력예습 수준	.214*	1

### 6. 심층 면접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 아울러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의 목표는 교사의 학습방법과 말하기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일정한 성향을 찾아보려는 데 있었다.

서가람 학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우선 개인적으로 어학원을 다니고 싶지만 비용도 부담되고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되어 별도의 학습과정에 대한 비용부담을 주저하였다. 이런 점에서 내 자신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과목이고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도록 해 주는 것 같았다. 특히 역할극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작문을 스스로 수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고 수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다. 또한 그룹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문장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 라는 답을 주었다.

최연옥 학생은 “교재 안에 그림을 보면서 표현을 직접 만들고 말하는 것은 표현과 어휘, 문법을 모두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회화 실력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단원마다 질문을 하셔서 회화로 유도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내용을 생각하여 긴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고, 틀린 부분은 교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한 중간고사 때 시행한 역할극의 경우도 조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 단원 주제에 관해 역할을 설정하여 문법, 표현, 재미 부분 등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좋았다. 또한 책에 마지막 부분에 긴 지문을 읽고 질문하는 형식은 그 주제에 관한 지식도 쌓이고 새로운 주제에 관해 질문을 창의적으로 만들게 하였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 주었다.

김혜미 학생은 “영어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평상시에 영어로 대화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작해서 영어로 말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도 수업시간에

말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하는 등의 생각을 해 본다,” 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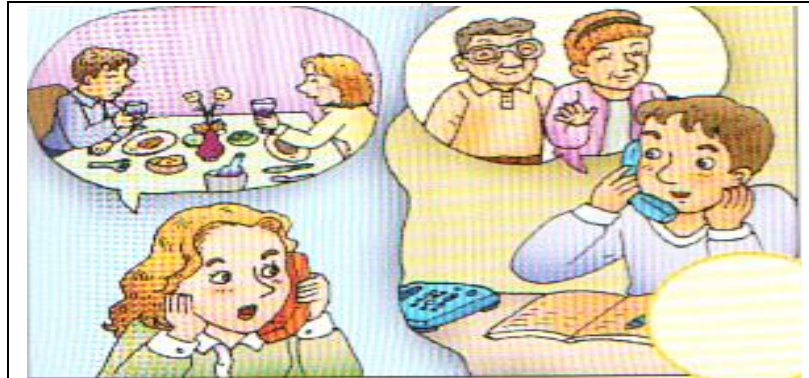
끝으로 서현지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영어 사용의 기회가 많지 않은데 학교 수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책에 있는 글을 읽는 것은 잘 되지만, 내 생각을 말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업시간에 다루는 주제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수업시간에 시험을 통해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였고 새로운 단어를 알아갈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사용한 교재의 정보가 요즘 세대 학생들이 느끼기엔 다소 구식적인 면이 있고, 지루한 지문을 읽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파트너와 더 많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에 대한 내용이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해주었다.

## V. 적용 및 논의

본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로 말하기 수업에 관심이 높고, 자신의 능력에 50% 이상을 수업시간에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의 예습과 소화력 수준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선호하는 학습활동으로는 자유토론, 짧은 대화 만들기, 역할극이며, 외국인과 친구를 맺고 편한 대화를 통해 영어 능력을 높이려는 욕구가 높았다. 실제적으로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말하기 능력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사례를 통하여 적용한 학습방법과 활동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앞으로 제시될 방법들을 기초로 하여 향후 다양한 교수방법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1) 모방적 말하기(Imitative Speaking): 학생들은 단어와 문장을 읽을 때, 단어하나하나의 발음, 연음현상, 여러 음절을 가진 단어의 액센트를 지키고, 억양을 만들고 억양을 잘 살리도록 큰소리로 읽어보게 하였으며 정확하게 따라하도록 지도하고 유창하게 읽도록 훈련 과정을 시행하였다.

2) 세부적 말하기(Intensive Speaking): 그림을 설명하는 활동에서 영어에 자신감이 있거나 말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자신의 생각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이름을 불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는데, 일단 영어로 발표를 해본 학생들은 미리 예습을 해오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였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며, 그 외에도 그림을 보고 대화를 만드는 활동(그림1)은 매우 즐겁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이미 배운 주요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해진 답안에 구애 받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수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lady is talking over the phone with a man. She is thinking of having a dinner with him, but he is thinking of visiting his parents because he hasn't seen them for one year.

그림 1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한 예

3) 반응적 말하기(Responsive Speaking): 이 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는 상세한 질문을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이 얼마나 잘 알아듣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답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미리 연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미리 수업에 사용할 자유토론(그림2)의 주제와 질문을 만들어 띄워 놓으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Shopping**

▷ **What does shopping mean to you?**

- Shopping is an escape from my stress.
- 
- 

**[Group A]**

- 1) What kind of shopper are you? (catalog shopping, home shopping, online shopping, shopping at department store, shopping at local markets, etc.)
- 2) Do you think the start of a new season is good for shopping?
- 3) Do you think shopping for clothes is a waste of money?
- 4) Do you buy fashion or beauty magazines?
- 5) Where is your favorite shopping district, Meong-dong, Apgujeong-dong, or Sinchon?

**[Group B]**

- 1) If you go shopping, what would you like to buy and why?
- 2) Do clothes tell people about our personalities?
- 3) Do you ever buy used ones?

- 4) Do you have any favorite clothing websites?  
5) Do you prefer buying good looking clothes or buying convenient clothes?

**그림 2** 교사가 쇼핑을 토픽으로 자유토론을 다룬 그룹별 질문의 예

(Rrrr...)  
Ay: Hello. Is this designer Sujung's office?  
Bs: Yes. May I ask who's calling?  
A : This is Yoonjung from Vogue fashion magazine.  
B : Hi, Yoonjung! This is Sujung speaking.  
A : Oh, I didn't recognize your voice. What happened?  
B : I have a bad cold.  
A : Why? You seemed okay when I met you the day before yesterday.  
B : Yes, but I hanged around with friends all night long.  
A : Then what made you to have a such bad cold?  
B : That's because of the club I went yesterday. We sang and danced until morning.  
A : Wow! It must have been exciting. Why didn't you call me?  
B : Sorry. I lost all the numbers I have in my cell phone.  
A : I'll let you know. It's 010-5511-8175.  
B : Is that 010-5512-8175??  
A : No, it is 5511.  
B : Thanks. I will call you next time when we go to the club.  
A : Okay. By the way, do you know the photographer's phone number?  
B : Sure. You mean the one we worked with last week?  
A : Yes. I need to arrange a meeting for our July cover design.  
B : Ok. His cell phone number is 010-4145-4658.  
A : What??? I can hardly hear you!!  
B : Do you hear any static?  
A : I think we have a bad connection.  
B : Ok. I will call you back right away.

**그림3** 짝 활동으로 역할극을 시연한 스크립트의 예

- 4) 상호작용적 말하기(Interactive Speaking):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창의적인 언어사용능력을 잘 활용하였다. 특히 역할극(그림3)의 내용은 일정부분 내용을 암기한 경우도 있지만, 각자의 역할을 시연하면서 신선한 학생들의 감각을 잘 사용하였다. 이 때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거쳐 기말고사를 위해 준비한 역할극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진지하게 발표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In order for me to be healthy, or be the body shape, I must watch what I eat and how much I eat. I do not eat any junk foods. That does include fast foods. I try not to eat a lot of chips, crackers, soda, or anything that is not good for the body. I am a very picky eater. I don't like



the taste or the feeling of anything that is fast foods. I don't like to eat anything greasy or oily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more oil you eat, the more it will eat up on your face. Though I do not eat much, I tend to eat often. Unlike most people, eating three meals a day cannot satisfy me. I tend to eat after every two hours but in very small portions. And that is how I keep myself healthy.

그림4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발표한 내용의 예

5) 확장적 말하기(Extensive Speaking): 본 활동에서 학습주제가 음식인 경우, 그룹활동으로 “우리 전통음식 만드는 법”을 준비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는데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참신한 감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 떡볶이 만들기, 김치 볶음밥 만들기, 김치 만들기, 부침개 부치기, 구절판 만들기 등 다양한 음식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설명하고, 만드는 과정의 그림을 첨부함으로써 호기심 넘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건강과 질병에 대한 토의를 다룰 때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그림4)을 준비하여 발표하게 하였다.

한편, 2학기에 배운 호텔, 쇼핑, 대중교통, 공항, 은행과 관련된 주제를 학습한 후 그룹별로 해외여행 계획을 잡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과업중심의 활동(그림5)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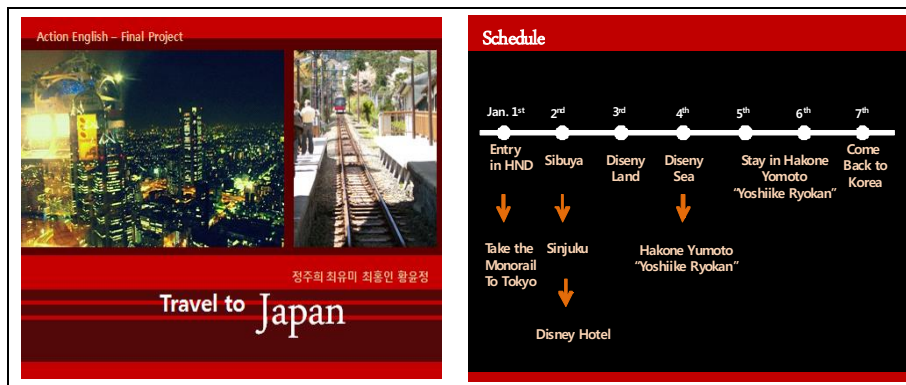


그림 5 그룹 프리젠테이션으로 일본 여행 계획을 발표한 예

그룹별로 한 나라씩 선택하여 친구들과 함께 여행가는 계획으로 그 나라에서 보고, 먹고, 쇼핑하고, 숙박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룹 프로젝트 활동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이고 많은 준비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업이었지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한 여행계획을 영어로 발표하여 전 세계를 여행하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유익한 정보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곁들여 발표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었다는 의견을 강의평가에 올려놓았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언어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방법과 활동들이 있었다. 첫째는 Nation(2001)이 말한 유창하게 영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단어로 구성된 단위(multiword units)를 사용하였다. 이 학습방법은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과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둘째로 학생들이 자신의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어휘사전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수단을 바탕으로 문맥에서 오는 다양한 활용방법을 추측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말하는 과정 중에 올바른 단어를 정확하고 무의식적으로 선별하여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도해 본 것이다. 셋째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Youtube”나 “Facebook”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며, “Skype”나 “Oovoo”를 통해 화상으로 여러 사람들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Youtube”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도록 노력하면서, 영어 학습을 위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경우에 노출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 VI. 결론

우리들은 영어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말하기능력을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재미있어 한다. 이것은 말하기 능력이 다른 기능보다 듣기, 어휘, 발음, 이해능력, 표현능력 등 많은 기능들의 통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어학습은 우리들에게 필수적면서도 우리의 기대수준만큼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영어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높음에 반하여, 많은 학습자들은 학습을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비원어민으로서 영어에 대한 자연스런 의사소통을 할 만큼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이 원어민, 비원어민 어디에 속하든지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전략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영어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본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은 영어로 말하기 수업에 관심도가 높고, 50%이상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수업시간에 발휘하고 있으며, 70%이상의 학생들이 영어수업의 60-80%정도를 소화하고, 영어학습도구로는 교재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는 외국인친구 만나기와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답하였고, 가장 선호하는 학습활동으로는 자유토론, 짧은 대화 만들기과 역할극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어로 말하기 능력의 개선 정도는 40-60%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본 연구는 비원어민 교사로서 교양영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과 활동들을 수업을 통하여 사용하였고, 일관성 있는 준비와 진행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사용능력 향상이 가능하였음을 검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공교육이 새로운 변혁을 거치면서 어떤 영어수업 시간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길 기대한다. 또한 비원어민 교사 외에도 원어민 교사들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과 활동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개발되어 모든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순복. (1998).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교육적 효과상의 차이와 그 제언.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1), 87-99.
- 박지선, 이문복. (2012). NEAT 말하기·쓰기 평가도입에 대비한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쓰기교수·학습현황분석. *Modern English Education*, 13(2), 121-149.
- 배두분. (1997). *초등학교 영어교육*. 서울:한국문화사.
- 임정완. (2012).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연구. *Modern English Education*, 13 (1), 263-277.
- 전지현, 이완기, 김정렬. (2011). 한국인의 영어말하기능력 기대수준에 관한 연구. *English Teaching*, 66(2), 273-305.
- Brown, H. D. (2004).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New York: Pearson Education.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New York: Pearson Education.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3rd ed.). New York: Pearson Education.
- Han, E. H. (2010). Nonnative English teachers (NNESTs) versus native English speaking students: Perceptions. *영어어문교육*, 16(1), 1-18.
- Medgyes, P. (1996). Native or non-native: Who's worth more? In T. Hedge & N. Whitney (Eds.), *Power, pedagogy & practice* (pp.31-4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 (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1<sup>st</sup> ed.). New York: McGraw Hill.

- Savignon, S. J. (1983).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2nd ed.). MA: Addison-Wesley.
- Savignon, S. J. (2002).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Linguistic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Interpreting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ontexts and concerns in teacher education*. CT: Yale University Press.
- Savignon, S. J. (2003). Teaching English as communication: Global perspective. *World Englishes*, 22(1), 55-66.

### 부록

#### 영어말하기 수업 대한 설문지

여러분의 말하기 수업에 대한 설문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현재 전공학과는?

- (1) 영어회화 수업 중 말하기 수업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는 어느 정도 인가?  
①아주 높다 ②높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낮은 편 ⑤매우 낮다
- (2) 현재 영어수업시간에 본인의 말하기 능력에 몇 % 를 발화하고 있나?  
①100% ②80%정도 ③60%정도 ④40%정도 ⑤20%이하
- (3) 어떤 영어 교사와 현재 영어로 말하기 수업을 하고 있나?  
①한국인 ②외국인 ③한국인/외국인
- (4) 본인은 영어수업 전에 말하기에 대한 학습이나 연습을 하고 수업에 참여하나?  
①많이 한다 ②조금 한다 ③거의 하지 않는다 ④전혀 하지 않는다.
- (5) 현재 영어수업의 수준은 본인의 수준에 비하여 어떠한가?  
①상 ②중 ③하
- (6) 영어말하기에 비교해서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①상 ②중 ③하
- (7) 본인은 영어수업에 몇 %정도 소화하고 있는가?  
①100% ②80%정도 ③60%정도 ④40%정도 ⑤20%이하

(8) 혼자 영어학습을 할 때 어떤 도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가?

① textbook ② CD Rom ③ Internet ④ mobile phone ⑤기타:

(9) 어떤 학습활동이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①movies ②외국인 친구 만나기 ③펜팔 ④여행 ⑤기타:

(10) 가장 선호하는 말하기 활동은 어떤 것인지 번호로 적어 주세요 (1, 2, 3..)

① Role plays ( ) ② Small talk dialogues ( )

③ Free talking( ) ④ Describing pictures ( ) ⑤ Others:

(11) 1학년 영어수업을 마치면서 영어로 말하기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기대는 어느 정도인가?

①100% ②80%정도 ③60%정도 ④40%정도 ⑤20%이하

(12) 영어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노석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39-7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H.P.:011-249-1981

Email: suenoh@hotmail.com

김형엽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39-7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Tel: (044) 860-1233/H.P.:010-4455-0186

Email: khyoub@korea.ac.kr

Received 15September 2012

Revised 3 November 2012

Accepted 17 November 2012